200자 안내

보따리

오쇼 라즈니쉬 지음 / 백송애 엮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만이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명상집. 저자는 모든 에너지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전하면서,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위선과 가식의 허울을 뒤집어쓰게 되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으며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 사랑 속에서 자신마저 죽여버렸을 때만이 사랑의 신비함과 비밀스러움을 맛볼 수 있다고 역설한다.

나라원 / A5신 / 316면 / 3800원

행운의 편지

전성호 지음

현재 휘문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저자의 수필집. '이제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들에게'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일정한 주제하에 씌어진 전작수필집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교편생활에서 경험한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강의 시간중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일, 국내의 곳곳을 혼자 여행한 저자의 체험 등이 진솔하고 간결한문체로 그려져 있다.

서해문집 / A5신 / 252면 / 3500원

체인지

다니엘 스틸 지음

1973년 「Going Home」을 발표,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이후로 섬세하면서도 넓은 스케일, 속도감 있는 내용전개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애정소설. 텔레비전 방속국의 앵커우먼으로서 정상을 달리고 있는 멜라니 애담스와 세계적인 심장전문의 피이터 핼럼이 운명적인 만남 이후 끝없는 고뇌와 갈등, 자기희생을 거쳐 마침내 행복을 일구어내가는 내용.

신서 / A5신 / 384면 / 4500원

솔로

잭 히긴스 지음 / 최재현 옮김

세계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이면서 GRU의 비밀요원과 연결되어 그의 명령에 의해 암살을 계속하는 죤 미카리, 그에 의해 딸을 잃은 영국 특수부대의 아사모건 대령,그리고 이들 사이 끼어든 여성심리학자 캐더린이 벌이는 사랑과 복수의 드라마. 완벽한 줄거리 절제된 폭력, 숨막히는 전율과 스릴 있는 사건전개로 큰 반응을 얻어 출간 후 뉴욕타임즈 7주 연속베스트셀러를 기록한 바 있다.

현대추리사 / A5신 / 306면 / 4000원

古都

가와바다 야스나리 지음 / 오근영 외 옮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국내에도 익숙한 작가의 만년 작품으로 1961년부터 일년간 아사히 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이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일본의 수도 교토의 풍속과 축제, 자연을 배경으로 지에코와 나에코라는 아름다운 쌍동이 자매 사이에 오가는 심정적 교류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가가 평생 일관되게 추구했던 자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가장 잘 드러나 작품이란 평가를 받은 작품.

청담사 / A5신 / 218면 / 3500원

결혼 매일 합시다

문문자 외 지음

MBC라디오 '여성시대'(정한용 손숙 진행)에 출품되었던 송년 부부 편지공모전 당선작품집.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서 칠십고희의 부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부부들이 애정, 증오, 이혼, 재혼, 생활고, 자녀문제, 집안문제 등 갖가지 형태의 생활경험들을 고스란히 풀어놓고 있다. '삶의 의미를 느낄 때' '당신을 깨우는 여자가 되렵니다' '사랑을 저축합시다' '고난을 넘어 환희로' 등 모두 4부에 63편의 편지글을 나누어 담았는데, 우리네 이웃의 가식없는 고백들이 가슴뭉클하게 와닿는다.

좋은책 / A5신 / 238면 / 4000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달또록

김경래 지음

애국가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故안익태선생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책.

1905년 을사조약으로 기울어가는 국운속에서 태어나 영욕이 교차하던 말년에 이르기가지의 생애를 요람기·성장시절·미국시절·유럽시절·주유시절, 그리고 60년대 이후로 나눠 기술하는 한편 애국가 표절시비를 다룬 논문 등 관계 참고자료를 모은 부록편을 마련했다.

현암사 / A5신 / 360면 / 5000원

꽃의 교향악 229번

서정주 외 지음

서정주·김춘수·고은·조병화를 비롯해 오규원·이승훈·이해인·최승호 등 현역시인 108명의 꽃을 소재로 한 시 229편을 시작노트와 함께 소개한 앤솔로지.

거리의 최루탄가스가 꽃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여인의 깊은 한이 서리꽃으로 형상화되는 한편 풀꽃의 건강한 생명력이 민중의 강인한 삶으로 상징되는 등 꽃을 통해 묘사된 각양 각색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권말에 평론가 김현자씨의 「시인의 명명행위와 꽃의 자기확대」를 함께 수록했다.

문화행동 / A5신 / 250면 / 4200원

의원님은 아무나 되나요

김수용 지음

광역의회에 출마했던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아직도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한 선거 풍토를 풍자한 장편소설이다.

작가 특유의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문장으로 "정치라고는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주인공 '김물룡' 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빚어내는 갖가지 사건들을 입심있게 그려내고 있다. 공천경위와 기발한 선거운동방법, 출마 후보들간의 암투와 공개적인 인신공격 등 선거와 관련된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고발돼 있다.

글사랑 / A5신 / 274면 / 3800원

바스커빌가의 사냥개

코난 도일 지음 / 이가형 옮김

추리작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작가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엔터테인먼트 스토리'로 일컬어지는 추리소설의 독자가 국내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본격적인 외국추리물의 국내번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출간됐다. 추리의 귀재 홈즈의 변화무쌍한 활약이 무서운 전설에 감싸여 내려오는 바스커빌 대저택의 공포분위기와 어우러져 긴장감 넘치는 추리소설 특유의 재미를 선사한다.

고려원미디어 / A5신 / 240면 / 3500원

죽어가는 청춘

마티 라임버크 지음 / 김은숙 옮김

현재 미국에서 급부상중인 신예작가의 출세작으로 매사추세스 해변마을을 무대로 한 애정소설이다. 백혈병에 걸려 은둔생활을 하는 '빅터', 그를 돌봐주기 위해 고용된 주인공 '힐러리', 건강한 삶을 사는 '고든' 사이의 삼각관계라는 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감상적인 부분을 억제한 사실적인 묘사로 전편에 걸쳐 박력과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최근 영화화되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성정 / A5신 / 348면 / 4000원

성에 대한 20가지 질문

다나까 빈미요우 편저 / 배선자 옮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가지 인간이 표현하는 성에 대한 모든 것을 10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한 책이다.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 성의 발달, 결혼생활과 성생활, 식생활과 성생활, 사랑과의 관계 등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 왜곡돼 나타나는 성의 문제를 궁금한 질문과 함께 건강하게 풀어주고 있다.

동서문학사 / A5신 / 208면 / 3000원

해가 지면 나는 왜 좌절을 마시는가

신상웅 지음

「히포크라테스 흉상」「분노의 일기」 등 소설집과 「배회」「바람난 도시」 등의 장편을 꾸준히 발표해온 작가(중앙대 교수)가 7,80년대에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한데 모아 묶었다.

첫 산문집이기도 한 이 책에는 작가가 직접 체험하고 바라본 인간과 삶, 문학, 젊은이에게 주는 글, 몇필의 르포 등이 날카로운 시각과 풍자로, 또는 따뜻한 인간애를 담은 시선으로 기록돼 있다.

모음사 / A5신 / 404면 / 4500원

박재서 희곡선

박재서 지음

85년 작품「팽」을 발표한 이래 쉽고 재미있는 희곡을 써왔던 작가의 작품집으로 그동안 공연되었던 작품 8편과 신작 2편을 모았다. "우리연극에 갖는 두 가지 불만은 내용에 사용되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일상적 용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고 말하는 작가는 바로 이점을 극복한 간결하고 평이한 언어로 쓴 연극대본을 선보이고 있다.

동문선 / A5신 / 504면 / 10,000원

홀로 된 사랑 홀로 된 이별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 석이주 옮김

18세기 러시아의 열렬한 여성혁명자로 활동했던 작가가 레닌과 이네사 아르망의 사랑을 소재로 쓴 일종의 실화소설. 자유주의적인 집안에서 자라 결혼한 아르망이 급진적인 여성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모스크바 봉기에 적극적으로 활동, 레닌을 만나면서 소설은 전개된다. 레닌주의자이면서 여성해방론자였던 한 여성이 격동의 한 시대를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부딪쳐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푸른산 / A5신 / 206면 / 3600원

행복을 파는 가게

김태길 외 지음

김태길·차주환·김시헌·김열규·허세욱·황필호·유강호 등 37인의 '수필문우회' 동인들의 글모음. 자화상으로서의 성격이 강

한 수필은 작가의 내면세계를 여러 각도로 드러냄으로서 독자는 작가의 마음을 비교적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74편의 짤막한 수필은 생활속에 은근히 배어 있는 숱한 정서들을 담담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수필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춘추사 / A5신 / 302면 / 4000원

최첨단 무기시리즈 2

요미우리신문사 지음 / 한결기획 옮김

국제정치력이 군사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각국이 보유한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는 국제정치의 이면에 자리한 본질적 요소를 파악하는 핵심이 된다. 이 책은 재래식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주력전차와 장갑차에 대한 상세한 풀이를 사진자료와 함께 보여준다.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신예중전차 M-1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와 치프렌, 프랑스의 AMX-30/32,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등 최강의 탱크·장갑차의 발달과 역사, 종류 및 운용원칙 등이 각국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전개된다.
이성과현실 / A5신 / 232면 / 4000원

베스트드라이버가 되는 길

선영득 지음

오너드라이버가 일반화된 현재에 이르러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제 막 운전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하기 위한 원칙과 어려운 상황에 임했을 때의 대처방법 등 운전에 관한 모든 상식적인 내용을 경험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핸들을 잡을 때의 팔의 각도와 방향,서울의 커브길 중 주의해야 할 장소, U턴방법과 차선변경요령,겨울철 운전 등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소상하게 풀이하고 있다.
기한재 / A5신 / 272면 / 5500원

하느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존 힉 지음 / 이찬수 옮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간 대화서적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이 책은, 학계에는 새로운 논의를 던져주며 일반인들에게는 다종교사회의 종교인의 몫을 생각케 할 책. 저자는 "오직 유일한 것으로서가 아닌 여러 형태의 신앙 가운데 하나로 재이해해야 한다"면서, "관점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쉬운 문제이다"라고 신앙관념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촉구한다. 모든 종교의 동등한 구원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이 책의 골자.
창 / A5신 / 184면 / 3000원

사할린

宇野淑子 지음 / 고계영 옮김

일본 동경텔레비전(TBS)의 현직 아나운서인 저자가 8년 동안 사할린과 한국을 오가면서, 태평양 전쟁의 부산물인 사할린 이산가족의 비극적인 인생살이를 추적하여 기록한 글로서 지난해 일본「潮賞」논픽션부문 수상작. 1942년 사할린의 탄광에 징용되어 종전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재혼, 코르사코프에서 생활해온 백동기 할아버지와 40여년간 그를 기다린 조소경 할머니 등 기구한 이산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석 / A5신 / 244면 / 4200원

새소리는 숲속에서 들어야 아름답다

안토니 드 멜로 지음 / 김만행 옮김

인도의 사상을 연구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가톨릭 신부가 된 이력을 지닌 저자가 우화를 통해 삶의 진리를 전달하는 명상집. 103가지의 짧은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에는 반역자를 없애는 사회는 평화를 얻을 수 있지만 미래는 없다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재미와 함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는 마음의 수양도 즐길 수 있다.
신세대 / A5신 / 222면 / 3800원

약속의 땅

정호진 지음

젊은 세대를 위한 성서연구작업을 꾸준히 해온 목회자인 저자가 성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한 책. 이스라엘의 역사를 골격으로 하여 구약성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모두 여덟개의 장으로 구성돼 각장마다 성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해석을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적 삶과 결부시킨 점이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웅진문화 / A5신 / 300면 / 4500원

남자에게 다리가 셋이었다면

김재원 지음

71년에 등단, 현재드라마를 쓰는 한편 사회운동과 강연에도 힘을 쏟고 있는 저자의 꽁트집. 그동안 신문, 잡지 등에 발표되었던 글을 모았다. '부베의 연인' '나는 오늘 퇴근 길에 복덕방에 들러 방을 내놓았습니다' '절대 순종형 아내의 남편 길들이기' '한박자 느린 남자' 등 35편의 꽁트를 4부로 나누어 수록. 일상적 사건을 기발한 재치와 유머로 포착,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되새겨 보게하는 것이 수록작품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덕성문화사 / A5신 / 302면 / 3800원

계간지

문학과 사회 (1991년 가을)

〔특집〕 욕망·권력 그리고 문학(오생근 / 김인환 / 우찬제 / 이형)
〔시〕최하림 / 김형영 / 허수경 / 조현석 / 성윤석 / 김태동
〔소설〕임철우 / 최시한 / 구효서
〔오늘의 한국문학〕▲현실에 대한 관찰과 존재에 대한 통찰(이남호) ▲흔들리는 길(김동원)
〔논문〕▲학문의 자유(이광주) ▲미완의 꿈-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출판 2(정문길)
〔테마서평〕조명래 / 송호근
〔제3회 怡山문학상 수상작 발표〕황동규 / 박완서
문학과지성사 / A5신 / 420면 / 4500원

작가세계 (1991년 가을)

〔高銀특집〕허무의 바다에서 華嚴의 땅으로
▲문학적 연대기(이경호) ▲작가를 찾아서(박해현) ▲작품론 I (류철균) ▲작품론 II (황현산) ▲작품론 III (이동하) ▲작가연구자료(이경호)
〔소설〕새로운 세대의 글쓰기
▲중편(박인홍 / 심상대) ▲단편(구효서 / 박상우 / 이순원 / 최윤 / 하창수 / 함정임)
〔해외작가특집〕미셸 뷔토르(해설·책임번역 / 김치수)
▲뷔토르論 ▲대담 ▲뷔토르의 소설론
〔시〕 정현종 / 김명인 / 김승희 / 함민복 / 이진우
〔작가세계신인〕▲시(이연주) ▲평론(임태우)
〔시특집〕高銀과 王維
▲高銀(禪시·오늘 외 29편 / 禪에 관한 에세이) ▲(서늘맞이 외 5편 / 해설)
〔쟁점〕90년대 초의 동인활동(정효구)
〔비평〕동양적 정신주의의 시와 시학(고형진)
세계사 / A5신 / 352면 / 5000원

현대소설 (1991년 가을)

〔소설〕김영현 / 이종은 / 우한용 / 강금희
〔장편연재〕섬에는 옹달샘(3회) (김석희)
〔한국의 작가 8·김영현〕밝은 세계와 까까운 세계의 불화(김만수)
〔자전적 사소설〕徒勞의 끝(안정효)
〔칼럼〕미래의 예측(복거일)
〔소설강의 1〕소설과 음악(서우석)
〔소설미학의 쟁점〕메타픽션과 한국적 수용의 문제(정정호)
〔한국소설의 새로운 해석 1〕「태평천하」론(이남호)
〔외국의 현대소설 8〕캐나다 편
▲자기부정과 자기억압의 극화(유명숙) ▲캐나다 문학의 나르시즘적 경향(데이비드 스테인즈 / 장경렬) ▲캐나다 현대소설(레이 스미스 / 육은정)
〔한국소설사 4〕김윤식 / 정호웅
〔서평〕신재성 / 유문선
현대소설사 / A5신 / 418면 / 4500원

한길문학 (91년 가을)

〔기행특집〕전환기의 세계와 문학예술 ▲통일독일의 희망과 좌절(반성완) ▲레닌묘와 햄버거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임헌영) ▲실사구시의 태도와 통일문학사의 열망(김재용)
〔논문〕▲'민족, 민중문학'을 다시 생각한다(이재현) ▲시에서 리얼리즘은 어떻게 실현되는가(윤여탁) ▲경향문학과 리얼리즘(김두규) ▲문학사와 민족혁명의 대중문학(송희복) ▲조선조 여류시인 송설당의 문학세계(리동균) ▲중국조선족문학의 민족적 특성(임범송)
〔서평〕 김태현 / 김윤태 / 오민석 / 이덕화
한길사 / A5신 / 304면 / 4400원

세계의 문학(91년 가을)

〔소설〕 ▲미친 사랑의 노래-여름의 幻(김채원) ▲구름그림자(최시한) ▲빗소리 (이청해) ▲행운의 숲(한정희)
〔시〕 천상병 / 정진규 / 이하석 / 허형만 / 채성병 / 황인숙 / 조은 / 이성희 / 이학성 / 박상순 / 이승욱
〔논문〕▲한국문학의 경제적 상상력(우찬제) ▲외국이론의 비판적 수용-포스트모더니즘 찬반론에 붙여(권택영) ▲탈현대 Postmodern 논쟁의 철학적 조망(윤평중)
〔계간비평〕▲안정효와 엄우흠의 소설(류철균)
〔서평〕신재기 / 류보선 / 신범순 / 구모룡 / 이혜원 / 이종환 / 강진호
민음사 / A5신 / 362면 / 5000원

200자 안내